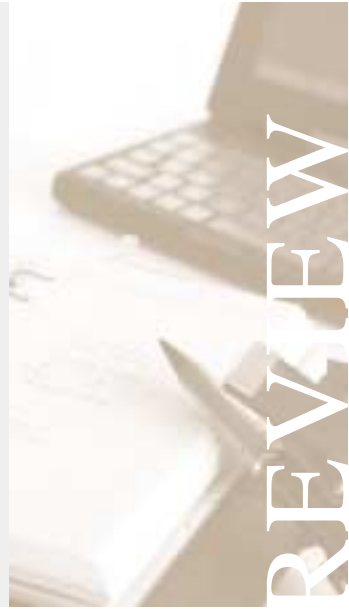


제10차 AOGS 학술회의 참관기

백경록

Kyungrock Paik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부교수
E-mail : paik@korea.ac.kr



저자는 지난 6월말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된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OGS)의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AOGS는 지구물리학분야의 대규모 학술단체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돕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OGS는 방재협회 회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학술단체라는 소견에 이번 기회를 빌어 간략한 참관기를 쓰게 되었다. 본 참관기에서는 AOGS에 대한 간략한 배경과 학회표정을 전달하고, 향후 발전전망에 관한 소견을 적어 본다.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지구물리학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단체를 꼽는다면 우선 미국의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과 유럽의 European Geosciences Union (EGU)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대 학술단체가 전통적으로 학계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미국 또는 유럽을 대표하는 학술단체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 AGU나 EGU처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구물리학 학술단체를 목표로 조직된 것이 바로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OGS)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고, 홍수, 가뭄,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에 AOGS의 탄생과 역할은 상당한 기대를 모아왔다. AOGS는 지난 2004년 첫 학술회의를 가진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며 한국 학자들의 참여도 활발한 학술단체이라 이미 우리에게 꽤 익숙한 학술단체라고 볼 수 있다.

AOGS는 매년 6-8월 무렵에 학술회의를 갖는데 올해는 6월 24일~28일 동안 호주의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AOGS의 제10차 학술대회로 AOGS의 10주년을 기념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고 할 수 있다. AOGS 학술대회는 그 동안 AOGS사무국이 위치한 싱가포르

| 리뷰 |

포르(Singapore)에서 다수 개최되기는 했으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만 열리는 AGU 가을 학술대회나 늘 비엔나(Vienna)에서 개최되다시피 하는 EGU학술대회와는 달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내 다양한 국가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지난 2008년에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번 브리스번 학술대회는 처음으로 남반구에서 개최되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AOGS학술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표1. AOGS 역대 개최지와 규모

년도	개최지	발표초록수	참가자 수	참가국 수
2004	싱가포르 (Singapore)	1130	1100	51
2005	싱가포르 (Singapore)	1060	846	43
2006	싱가포르 (Singapore)	844	744	43
2007	방콕(Bangkok)	1172	1093	49
2008	부산(Busan)	1704	1627	51
2009	싱가포르 (Singapore)	1226	1148	52
2010	하이더라바드(Hyderabad)	1118	1054	43
2011	타이베이(Taipei)	1720	1637	44
2012	싱가포르 (Singapore)	1969	2097	60
2013	브리스번 (Brisbane)	1462	1336	47

특이한 사항은 작년 싱가포르 대회가 전년에 비해 규모가 급성장한 것인데, 이것은 2012년에 AOGS가 격년마다 열리는 AGU의 서태평양지구물리학회(Western Pacific Geophysics Meeting)와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덕분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학회표정

남반구에 위치한 브리스번은 한국과 계절이 반대이므로 학회기간 중 초겨울의 날씨를 보였다. 그러나, 초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브리스번이 호주에서도 따뜻한 지역이라서 실제 느낌은 가을날씨 정도로 쾌적하였다. 학회장인 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는 브리스번 최대번화가에서 브리스번강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다. 현지 물가가 비싼편이라서 참가자들의 주머니 사정에 부담을 줬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참가자가 북반구에서 참여하므로 호주까지 먼 거리를 비행하여 온다는 교통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개최지를 선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점이기도 하지만, 명실공히 아시아-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학회이므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한번 즈음 개최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 보인다. 사실 위에 나열한 정도의 불편을 제외하면 좋은 여건에서 학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AOGS은 학술발표회가 구두발표위주로 진행되며 이는 대부분의 발표가 포스터로 진행되는 AGU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번 AOGS학술대회에서는 포스터발표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Best Student Poster Competition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AOGS는 여러 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분과의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는 AS(Atmospheric Sciences), BG(Biogeosciences), HS(Hydrological Sciences), IG(Interdisciplinary Geosciences), OS(Ocean Sciences), PS(Planetary Sciences), SE(Solid Earth Sciences), ST(Solar and Terrestrial Sciences) 등 8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사실 방재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분과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AOGS에서는 Distinguished Lectures라고 해서 각 분야의 유명 학자로부터의 초청강연을 준비하였다. 올해는 총 17명의 초청강연이 준비되었는데, 이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김중훈 교수) (표2).

표2. 2013년 AOGS Distinguished Lectures

구분	발표자		제목
Axford Lecture	Asahiko TAIRA Japan Agency of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		Recent Operational and Scientific Achievements of D/V Chikyu
	Tom BEER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Climate Variability and Change
Section Lectures	AS	Richard S. LINDZE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limate Sensitivity: What is it? What is Involved? How can it be Measured? When is it Relevant?
		Elizabeth EBERT Centre for Australian Weather & Climate Research (CAWCR), Bureau of Meteorology	How Good is it? New Approaches for Forecast Verification
	BG	Josep CANADELL Global Carbon Project, CSIRO Marine & Atmospheric Research	The Human-Perturbation of the Global Carbon Cycle and Its Management for Climate Protection
	HS	Shie-Yui LIONG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ome Water Related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Joong Hoon KIM Korea University	Optimization Algorithms as Tools for Hydrological Science
IG	Patrick NUNN The University of New England	Lashed by Sharks, Pelted by Demons, Drowned for Apostasy: the Value of Myths that Explain Geohazards in the Asia-Pacific Region	

리
뷰

| 리뷰 |

Section Lectures	IG	Robert WASSON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owards A Unified Geomorphology
	OS	Susan WIJFFELS CSIRO Marine & Atmospheric Research	A Decade of Argo: Achievements and Future Challenges
		Toshitaka GAMO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Tokyo	Chemical Oceanography of the Japan Sea, a Unique Marginal Sea in the Northwestern Pacific
	PS	Rickard LUNDIN Swedish Institute of Space Physics	Planetary Plasma Acceleration and Escape Processes - Cosmic Analogies
		Narendra BHANDARI Physical Research Laboratory	Planetary Exploration: Indian Perspective
	ST	Lou Chuang LEE Institute of Space Science of National Central University	Electrodynamic Coupling Processes in the Solar-terrestrial Environment
		Daniel BAKER LASP, University of Colorado	Space Physics Exploration: Basic Research with a High Public Purpose
	SE	Lin SUTHERLAND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The 'Strip of Fire' : A volcanic second front, inboard the West Pacific 'Rim of Fire'
		Chris RIZO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GGOS: An Observing System for the Geosciences

AOGS의 발전방향

AOGS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아시아-오세아니아를 본거지로 하는 학술단체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AOGS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작하는 국제학술지 간행사업이다. AOGS에서는 지금까지 학술대회 외에 Advances in Geosciences라는 학술지를 발간해왔으나 이것은 AOGS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Journal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AOGS는 Springer출판사와 손잡고 Geoscience Letters라는 저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며 논문제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향후 이 저널이 국제적인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회의 발전은 상당부분 그 학회를 책임지는 집행부의 역량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다. 마침 이번 학술대회기간 동안 AOGS차기 집행부를 투표로 선출하게 되었다. AOGS는 2년마다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있으며, 선출방식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투표권은 당해 AOGS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골고루 주어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현 AOGS부회장인 Yun-Tai Chen교수가 차기 AOGS회장에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각 분과별 차기 회장도 선출되었는데, HS(수문분과)에서는 현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인 경북대 한건연 교수가 HS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실 수문분과에서는 그 동안 한국 학자들의 역할이 돋보였는데 고려대학교 윤용남 명예교수가 1,2대 회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동아대학

교 박남식 교수가 이전 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이번에 한건연 교수의 선출로 이러한 전통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한대로 AOGS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여전히 젊은 학회이다. 앞으로 AGU 및 EGU와 더불어 지구과학분야의 세계 3대 학술단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내년 AOGS학술회의는 일본의 삿포로(Sappor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7월 28일~8월 1일). AOGS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asiaoceania.org> 에서 찾을 수 있다.



학회장 모습



MIT의 Lindzen교수 강연모습. 논쟁을 일으켰던 2007년 영국다큐멘터리 The Great Global Warming Swindle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분이다.



고려대학교 김중훈 교수의 Distinguished Lecture



차기 회장단 투표장 모습. 수문분과에서는 한건연 교수가 HS President에 선출되었다.